

5. 동작과 상태 설명하기

5강에서는...

- 1) 자동사와 타동사로 평서문을 표현해 봅시다.
- 2) 자동사와 타동사로 부정문을 표현해 봅시다.
- 3) 동작성 동사와 상태성 동사로 명사를 만들어 봅시다.

<태국의 문화> 태국의 향신료 '고수'

1. 동작과 상태를 설명하는 동사의 평서문 표현

태국어의 동사는 목적어가 없는 자동사와 목적어가 있는 타동사로 나누어진다.

또한 이 동사들은 다시 동작을 설명하는 동작성 동사와 감정이나 상태, 형태를 설명하는 상태성 동사로 나눌 수 있다.

① 자동사

목적어를 필요로 하지 않는 동사로 주어 + 자동사의 문장 구조를 갖는다.

<동작성 자동사>

ຢືນ	ຢືນ(yim)	미소짓다
ເຫີນ	ເຫີນ	걷다
ນອນ	ນອນ	자다

[EBS 초급 태국어]

ເຮືອມີ່ນ

(트 ㅏ - 임): 그녀는 미소 짓는다.

ເຮາເດີນ

(라오 드 ㅓ - ㄴ): 우리는 걷는다.

ພໍ້ມະຍັນອນທີ່ບ້ານ

(피 ㅏ- 차-이 너-ㄴ 티 ㅓ- 바-ㄴ): 형(오빠)는 집에서 잔다.

<상태성 자동사>

ສວຍ	쓰-아이	예쁘다
ສູງ	쑤-ㅇ	(키가) 크다, 높다
ຜອນ	퍼-ㅁ	마르다

ພື້ນຖານຂອງຜົມສວຍ

(피 ㅏ- 쌔 ㅓ-우 커 ㅓ- 옴 쑤-아이): 나의 누나는 예쁘다.

ຄຸນພ່ອຂອງເຂົາສູນແລະ ຜອນ

(쿤피 ㅓ- 커 ㅓ- 카오 쑤 ㅓ- 래 퍼 ㅓ-): 그의 아버지는 키가 크고 말랐다.

[EBS 초급 태국어]

② 타동사

목적어를 필요로 하는 동사로 주어 + 타동사 + 목적어의 문장 구조를 갖는다.

<동작성 타동사>

กิน	กิน	먹다
ซื้อ	ซื้-	사다
เรียน	เรียน	공부하다

ดิฉันกินข้าว

(디찬 낸 카우): 나는 밥을 먹는다.

คุณแม่ซื้อของในตลาด

(쿤마- 쓰- 커-_o 나이 딸라-ㅅ): 어머니는 시장에서 물건을 산다.

เขารีียนภาษาไทยในโรงเรียน

(카오 리-안 파-싸- 타이 나이 로-o 리-안): 그는 학교에서 태국어를 공부한다.

<상태성 타동사>

รัก	รัก	사랑하다
ชอบ	ชอบ	좋아하다
คิดถึง	คิดถึง	보고싶다, ~에 생각이 미친다

คุณพ่อรักเรา

[EBS 초급 태국어]

(쿤퍼- 락 라오): 아버지는 우리를 사랑한다.

ତିଜ୍ଞନଚୋପଖା

(디찬 처-ㅂ 카오): 나는 그를 좋아한다.

ເຮືອຄົດໜຶ່ງລູກໜາຍ

(트ㅓ- 깃통 루-ㄱ차-이): 그녀는 아들을 그리워한다.

2. 동작과 상태를 설명하는 동사의 부정문 표현

태국어의 부정문은 단순히 동사 앞에 '~이 아닌, ~이 아니다'라는 뜻의 'ไม่(마이)'를 첨가하면 된다.

즉, 주어 + ไม่(마이) + 자동사, 주어 + ไม่(마이) + 타동사 + 목적어의 형태로 나타납니다.

ເຮືອໄມ່ຢືນ

(트ㅓ- 마이 임): 그녀는 미소 짓지 않는다.

ພື້ສາວຂອງຜົມໄມ່ສ່ວຍ

(피- 싸-우 커-ㅇ 폼 마이 쑤-아이): 나의 누나는 예쁘지 않다.

ତିଜ୍ଞନମୈଚୋପଖା

(디찬 마이 처-ㅂ 카오): 나는 그를 안 좋아한다.

ຄູນພ້ອຂອງເຂາໄມ່ສູງແລະໄມ່ຜອມ

(^昆^皮- 커-^o 카오 마이 쑤-^o 래 마이 퍼-^o): 그의 아버지는 키가 크지 않고 마르지도 않았다.

3. 동작성 동사와 상태성 동사의 명사화

단어의 변화를 주지 않는 태국어는 동사 앞에 접두사 **ກາງ(까-ㄴ)**이나 **ຄວາມ(콰-ㅁ)**을 첨가해서 명사로 만들 수 있다.

① 접두사 **ກາງ(까-ㄴ)**: 동작성 동사의 명사화

ຢືນ	ຢືນ(yim)	미소짓다	ກາຮຢືນ	까-ㄴຢືນ(yim)	미소
ເດີນ	ເດີນ 드-+ㄴ	걷다	ກາຮເດີນ	까-ㄴ 드-+ㄴ	걷기
ນອນ	ນອນ 너-ㄴ	자다	ກາຮນອນ	까-ㄴ 너-ㄴ	잠
ກິນ	ກິນ 깐	먹다	ກາຮກິນ	까-ㄴ 깐	먹기
ໜ້ອ	ໜ້ອ 쓰-	사다	ກາຮໜ້ອ	까-ㄴ 쓰-	구매
ເຮືອນ	ເຮືອນ 리-안	공부하다	ກາຮເຮືອນ	까-ㄴ 리-안	공부

ກາຮເຮືອນກາຈ່າໄທຍສນຸກ

(까-ㄴ 리-안 파-싸- 타이 싸-눅): 태국어 공부는 재미있다.

② 접두사 **ຄວາມ(콰-ㅁ)**: 상태성 동사의 명사화

ສວຍ	쑤- ^o 아이	예쁘다	ຄວາມສວຍ	콰-ㅁ 쑤- ^o 아이	예쁨
ສູງ	쑤- ^o o	(키가) 크다, 높다	ຄວາມສູງ	콰-ㅁ 쑤- ^o o	키, 높이

[EBS 초급 태국어]

恫وم	퍼-ㅁ	마르다	ความ恫وم	콰-ㅁ 퍼-ㅁ	마름
รัก	락	사랑하다	ความรัก	콰-ㅁ 락	사랑
ชอบ	처-ㅂ	좋아하다	ความชอบ	콰-ㅁ 처-ㅂ	좋아함, 선호
คิดถึง	깃통	보고싶다, ~에 생각이 미친다	ความคิดถึง	콰-ㅁ 깃통	그리움

ความรักทำให้มีความสุข

(콰-ㅁ 락 탐 하이 미- 콰-ㅁ 쑥): 사랑은 행복하게 해준다.

4. 대화: 동작과 상태 설명하기

ปอนด์: คุณน้ำทำอะไรไร้ครับ

(빠-ㄴ) (쿤 나-ㅁ 탐 아라이 크랍): 남씨, 무엇을 하나요?

น้ำ: 迪ฉันกินข้าวค่ะ

(나-ㅁ) (디찬 낀 카-우 카): 저는 밥을 먹어요.

คุณปอนด์กินข้าวใหม่ค่ะ

(쿤 빠-ㄴ 낀 카-우 마이 카): 뻔씨 밥 먹을래요?

ปอนด์: ไม่เป็นไรครับ

(빠-ㄴ) (마이 뻔 라이 크랍): 괜찮아요.

ຜມໄມ່ກິນຂ້າວຄຮັບ

(恫 마이 낀 카-우 크랍): 저는 밥을 안 먹어요.

น้ำ: คนนั้นคือใครจะ เธอยิ่ม

(나-으-) (콘 난 크- 크라이 카 트- 임): 저 사람은 누구인가요? 그녀가 미소 짓는데요.

ปอนด์: เฮอคีอี้ฟี่สาวของพมครับ

(뻬-ㄴ) (트-ㅏ- 크- 피- 싸- 우 커- ㅇ 품 크- ㅏ): 그녀는 저의 누나예요.

พี่สาวของผมสวย

([^]피- ^ˇ싸-우 ^ˇ커- [◦] 품 ^ˇ 쑤-아이): 저의 누나는 예뻐요.

ขอโทษครับ คนนี้คือใครครับ

(커-토-ㅅ 크랍, 콘 니- ㅋ- 크라이 크랍): 실례지만, 이 사람은 누구인가요?

น้ำ: คนนี้คือคุณพ่อของดิจันค่ะ

(나-ㅁ) (콘 니- 크- 쿤퍼- 커-○ 디찬 카): 이 사람은 저의 아버지예요.

ท่านตัวสูงและผอม

(^{tan} ⁻_{tu-}⁻_{ya} ^v_{s-}^v_o [/]_{r-e} ^v_{p-e-}^v_o): 아버지는 키가 크고 말랐어요.

〈복습하기〉

다음의 한국어를 보고 적절한 태국어 문장을 이야기해 봅시다.

- 우리는 걷는다.
- 우리는 안 걷는다.

- 나는 밥을 먹는다.
- 나는 밥을 안 먹는다.

- 나의 누나는 예쁘다.

- 형(오빠)는 집에서 잔다.
- 그의 아버지는 키가 크고 말랐다.

- 어머니는 시장에서 물건을 산다.

- 태국어 공부는 재미있다.

- 사랑은 행복하게 해준다.

< 태국의 향신료 - 고수풀(팍치)>



‘팍치’라고 부르는 고수풀

출처: <https://pixabay.com/th/photos/ผักชีฝรั่ง-เครื่องปรุง-อิตาเลียน-ใบ-164493/>

태국어의 ‘팍치’라고 부르는 고수풀은 태국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향신료이다. 강한 향 때문에 한국인들 중에서는 이 고수풀을 싫어하는 사람이 많다. 태국어를 배울 때 가장 먼저 외우는 말이 ‘고수풀 넣지 마세요’인 ‘まい 싸이 팍치-(ไม่ใส่ผักชี)’ 일 정도이다. 그러나 고수풀은 우리 몸에 미네랄 흡수를 도와주고, 갈증을 해소해주며, 기침, 감기, 구토와 어지러움증 해소에 도움이 된다고 한다. 그리고 식중독으로 인한 증상을 완화시켜줄 수 있다. 고수풀의 효능을 보니, 더운 나라이 태국에서 고수풀을 비롯한 향신료 사용이 빈번한 것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. 특히나 더운 날씨에 입맛을 잃기 쉬울 때 향신료의 강한 향은 입맛을 돋워주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.

한편 태국어에는 ‘팍치- 로-이 나-(ผักชีโรยหน้า)’라는 말이 있다. 잘게 다진 고수풀을 음식 위에 뿌려 먹음직스럽게 만든다는 말인데, 그 속뜻은 부실한 내용물을 겉으로만 치장한다는 말을 의미한다. 어찌되었든 태국인들에게 있어서 고수풀이 음식 위에 뿌려진 것은 매우 먹음직스럽게 느껴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. 태국인들은 국물이 있는 음식, 볶음 음식, 짬 요리 등 거의 모든 음식 위에 고수풀을 얹는다. 심지어 태국식 샤브샤브인 수끼 요리의 소스에도 고수풀을 다져 넣는다. 다음에 태국 음식을 먹게 된다면, 한번쯤 과감히 고수풀을 넣은 채로 먹어봄이 어떨까? ‘まい 싸이 팍치-(ไม่ใส่ผักชี)’ 대신 ‘싸이 팍치-(ใส่ผักชี)’라고 이야기 해보자.